해인총림 제10대 방장 후보에 대원 대종사

9월 30일 산중총회서 만장일치로
"한 몸으로 돌아가자" 화합 당부
오는 11월 중앙종회서 추대 예정

신중일 기자 ·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해인총림 해인사 제10대 방장 후보로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학산 대원 대종사〈사진〉가 추대됐다.

해인총림은 9월 30일 경내 보경당에서 개최한 '해인총림 방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대원 대종사를 차기 방장 후보로 추대했다.

총림을 대표하며 지도감독권을 갖는 방장은 산중총회의 추천으로 중앙종회에서 추대한다. 산중총회에선 산중 고유의 방식으로 방장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방장은 선·교·율을 겸비한 법계 대종사급, 승랍 40년 이상의 본분종사 자격이 필요하다. 임기는 10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대원 대종사의 방장 추대는 11월 5일 개원하는 조계종 중앙종회 제232회 정기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원 대종사는 만장일치 추천 이후 첫 일성으로 '총림 화합'을 강조했다. 대원 대종사는 "해인총림 추대 문제로 조금은 소란스러웠다. 그럼에도 대중스님들의 노력으로 방장 후보로 추천받을 수 있었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한편으로 짐이 무겁다"고 소회를 밝힌 대원 대종사는 "(총림대중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몸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마음으로 해인총림이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가자의 본분인 수행을 철저히 할 때 화합은 저절로 이뤄질 수 있다"면서 "수행을 근본으로 새겨 해인총림이 빛나도록 모든 총림대중이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산중 총회 직후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은 대원 스님 방장 후보 추대를 알리며 "많은 분들의 참여와 동참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여법하게 마무리 되어 새로운 방장을 모시게 되었다"며 대중스님들과 함께 삼배를 올렸다.

해산 후 해인사 대중스님들은 용탑선원에 모여 하례하며 축하 인사를 나눴다. 이 자리에 모인 스님들은 "앞으로 선수행을 통해 해인사의 수행



가풍 위상을 드높여야 한다"며 "방장의 위상이 해인사의 위상"이라고 말했다.

학성 스님은 "그동안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선교를 바로 세우자고 결의했었다. 이제 태양과 같은 대원 선사를 모셨으니 해인사가 빛이 나고 한국불교에도 밝은 영향력을 선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혜만 스님은 "해인사 문도를 하나로 모으는데 힘이 들었지만 오늘은 축제의 날이다"며 "조계종 선종의 정체성에 어울리는 수행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으로 해인총림의 납자들을 제접할 대원 대종사는 간화선 대중화를 위해 평생을 걸쳐 노력해 온 대표적 선지식이다. 1942년 상주에서 태어난 대원 대종사는 1956년 상주 남장사에서 고암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해 1958년 사미계를, 1962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6년 일대시교를 이수한 뒤 혼해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은 대원 대종사는 이후 21년간 제방선원을 다니며 효봉, 동산, 고암, 경봉, 전강, 향곡. 성철, 구산 스님 등 여러 선지식들의 회상에서 용맹정진했다. 1972년 해인총림 방장실에서 고암 대종사께 참문하고 공부를 점검받다가 깨달아 오도송을 지어 받치고 인가를 받았으며, 1986년 전법게와 부촉을 받았다.

대원 대종사는 1986년 제석사 옛터에 학림사를 창건하고, 1995년 오등선원을 개원했다. 2001년 오등시민선원을 개원한 대원 대종사는 간화선법을 대중에게 알리는 데 진력해왔다.

2010년 전국선원수좌회 수석대표에 추대됐으며, 2013년 해인총림 서당 수좌와 조계종 원로의원에 위촉됐다. 2014년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2022년에는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추대됐다.

본각 스님·법해 스님 표창…"불교문화 보존 계승 기여"

총무원장 진우 스님, 9월 30일 수여
"승가 안정 기여 비구니스님 치하"



본각 스님이 종정스님 공로패, 법해 스님이 총무원장 표창패를 받은 가운데 수여식에 전국비구니회 임원스님들이 함께해 축하했다.

전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고양 금륜사 주지 본각 스님이 종정스님 공로패를, 서울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이 총무원장 표창패를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9월 3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공로패와 표창패를 수여했다.

본각 스님은 비구니 승가의 화합과 증진을 이끌어낸 점, 특히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며 스님들의 역할과 위상을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진우 스님은 "본각 스님은 비구니 회장 소임을 맡으며 비구니 스님들의 소통과 정진을 위해 힘썼고, 2023년 18차 샤카디타 대회를 원만히 성료했다"면서 "불교역사 바로세우기, 기후위기, 환경 보호 매진 등 한국불교 미래의 기반을 조성한 공로가 크다. 앞으로도 비구니 승가는 물론 종단 발전을 위해서도 힘을 보태달라"고 격려했다. 본각 스님은 "비구니 전체가 하는 일을 종단으로부터 인정받아 기쁘다"고 감사를 표하며 "선명상 보급 등 종단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말했다.

법해 스님은 진관사에서 사찰음식 보존 및 홍보에 힘쓰고 있고, 세계불교 여성들의 행사인 '샤카디타'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진우 스님은 "진관사 주지와 중앙종회의원 소임을 잘 수행하고 회주 계호 스님과 함께 진관사를 세계인들이 찾는 한국의 명소로 성장시켰다"면서 "불교홍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법해 스님은 "종단 어른스님들이 중심을 잡아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면서 "지난 주말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선명상 대회가 매우 감동적이었다. 앞으로 종단 일에 마음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형형색색 가을향연…국화향 가득 조계사

서울 조계사가 국화화엄축제
11월 14일까지 11개 테마로

서울 조계사에 형형색색의 가을 향연을 알리는 국화로 가득찼다.

10월 3일 개최된 '제14회 국화화엄축제' 개막식에서 주지 원명 스님은 도량 곳곳의 국화 장엄물에 생명을 불어놓고 건강한 생장을 발원하며 정병의 청정수를 뿌리는 의식을 진행했다.

참석 대중은 "국화 한 송이도 수많은 인연과 조건이 모여 피어난 것처럼 축제도 여러 사람의 정성과 노력이 모여 어우러진 귀한 인연임을 잊지 않겠다"면서 "지역사회에 공덕 회향과 부처님 자비광명이 온 세상에 퍼지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발원했다.

이번 국화화엄축제는 11월 14일까지 11개 테마로 진행된다. 불자들이 이루고자 하는 대표적인 서원 11개를 선정, 장엄물과 연결해 기도할 수 있게 했다.

임은호 기자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은 개막식에서 국화 장엄물에 청정수를 뿌리며 건강한 생장을 발원했다.

"개산조 태허 조사 가르침 깊이 새기자"

관음종, 태허 조사 탄신 120주년 다례재 봉행

종도들 "조사 유훈 되새기자" 다짐
내년 창종 60주년 맞아 학술행사



관음종(총무원장 법명 스님)이 개산조 태허 조사 탄신 120주년 다례재와 내년 창종 6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심포지엄을 열고 종단이 나아갈 방향을 살폈다.〈사진〉

관음종은 9월 27일 총본산 낙산 묘각사 원통보전에서 '개산조 태허 조사 탄신 120주년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종정 홍파 스님은 추모법어를 통해 "개산조 태허 조사께서는 거리 설법과 전국 순회 법회를 통해 바른 불교의 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셨다. 조사의 전법행은 1979년 낙산 묘각사에서 열반에 들기 전까지 쉬지 않았다"며 "오늘날 혼탁한 세상에서 부처님의 정법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태허 조사 스님이 관음종을 창종하고 전법을 행했던 유훈을 잊지 말고 실천토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다례재 이후에는 '관음종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이 대불보전에서 열렸다.

이날 학술심포지엄에서는 허남결 동국대 교수의 기조강연을 비롯해 관음종의 종헌과 역사, 사회실천사업 등을 조명하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됐다.

1904년 경성에서 태어난 태허 조사는 1929년 조계산 선암사로 출가해 조선불교선교양종 교정 경운 선사에게 득도했다.

태허 조사는 1965년 12월 관음종의 전신인 대한불교불입종을 창종해 이듬해 초대종정에 올랐으며, 낙산 묘각사에서 전법포교에 매진하다가 1979년 6월 24일 법랍 50년, 세납 75세로 열반에 들었다.

신중일 기자

국가유산수리기능
목조각 제 1728호
소 목 제 5972호
www.dongbangart.co.kr

동방예술원

사찰 내부불사 _ 수미단, 닫집, 목창호, 인등장, 현판, 주련

인도 분황사 대웅보전 닫집 및 수미단



세종 광제사 대웅보전 닫집 및 수미단



동방조형예술원 489-30-01174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여양1로 612-18 010-7581-1010